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

장애인주일 ... 사랑부 교사 모집,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

4월 23~24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마음과 뜻을 모으는 뜻깊은 날이다.

장애인사역본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를 섬길 교사와 서포터즈(단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야외활동(소풍, 캠프, 외부기관 탐방 등) 도우미 역할을 하면 된다. 이강천 교사(예수사랑부)는 "성도님들이 장애인을 대하고 돕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6면>.

온누리교회와 굿월스토어가 함께하는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이 4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은 서빙고, 양재, 수원, 대전,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이나 '굿월스토어 수거함'에 기증할 물품을 가져다 주면 된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예배, 음악 활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돕고 있다.

온누리교회 장애인 예배공동체는 서빙고 꿈사랑부(미취학~중고등부



사진은 지난 2019년 예수사랑부 봄소풍.

장애아동), 사랑부(19~29세 장애청소년 및 청년), 예수사랑부(30세 이상 발달장애청장년), 누리사랑부(성인 지체장애)가 있다. 캠퍼스는 양재 사랑부(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 강동 사랑부(발달장애 미취학~성인), 부천 사랑부(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 인천 사랑부(발달장애 아동~청장년)가 있다.

꿈사랑부 주일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302호, 사랑부 오전 9시 서빙고 콘서트홀, 예수사랑부 오

전 11시 30분 서빙고 한동홀, 누리사랑부 오전 11시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사랑부 오전 9시(1부), 11시 30분(2부) 비전홀B, 강동 사랑부 11시 경찬홀, 부천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꿈아이홀, 인천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 및 자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사랑챔버' 오케스트라와 '온사랑합창단'이 그 주인공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음악과 연주

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비장애인들에게 감동과 축복을 선물하는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문의: 02-3215-326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달려라풍당' 참가자 접수

참가자 5,000명, 거리 170,000km, 모금액 3억 원 목표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 캠페인 '달려라풍당' 참가자를 모집한다. 달려라풍당은 전국 200개 교회에 교회 학교 콘텐츠 및 스마트TV 지원을 목표로 하는 챌린지다. 참가신청은 4월 18일(월)부터 '네이버폼', '체리' 앱에서 하면 된다. '체리' 앱에서는 접수부터 운동별 기록 측정, 랭킹 확인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

달려라풍당 캠페인은 5월 7일(토)부터 6월 6일(월)까지 31일 동안 이어진다. 걷기, 달리기, 러닝머신,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팅 등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한 시간에 운동

하면 된다. 31일 동안 쌓인 km수 만큼 작정 금액을 후원하면 된다. 후원금은 차세대 콘텐츠 제작과 주일 학교 운영이 어려운 전국 200여 개 교회 예배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달려라풍당' 캠페인 목표는 참가자 5,000명, 거리 170,000km, 모금액 3억 원이다. '달려라풍당' 스페셜 라이딩도 열린다. 5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공원에서 양재천 근린공원까지 총 17km에 달하는 코스를 함께 걷거나 달린다.

문의: 02-796-2243

현혈, 최고의 이웃사랑! 생명나눔의 기적 6월 5일까지

생명을 나누는 것만큼 귀한 이웃사랑 실천이 없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최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6월 5일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SNS 계정과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관련기사 4면>.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5월 2일 유튜브 채널 업로드, 223명 신청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는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윤희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이하 행복드림 콘서트)가 막 오른다. 5월 2일(월)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이 업로드된다. 행복드림 콘서트 신청자들은 5월 2일 이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행복드림 콘서트 신청자가 무려 223명이다. 부모님 312명이 전도대상이다. 전도사역본부에서는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요청자 기도모임을 두 차례(20일, 27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고, 중보기도 단체채팅방도 운영한다. 단체채팅방에 기도제목을 공유하면 전도사역본부에서 함께 중보기도해준다.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인천온누리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4월 24일(주일) 오후 2시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인천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창

립했다. 지난해 7월 7일(수) 새로 건축한 예배당에서 입당예배를 드렸다.

서경남 목사(인천온누리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다문화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하겠습니다”

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현장 방문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향을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이 490만 명이 넘었다.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돌봐야 한다. 시대적 사명이다. 이 귀한 일에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이 발 벗고 나섰다.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더 잘 섬길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와 정승일 PM이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현장을 찾았다.

/ 편집자 주



정승일 PM
(NGO 더멋진세상)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몰도바 스테우체니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시설(이하 스테우체니교회, NGO 더멋진세상 한요안 협력선교사 운영)을 찾았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꽤 밝은 분위기였다. 스테우체니교회에서 지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아이들에게서 건강과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태어난 지 4일 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도 스테우체니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시설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남편을 꼭 닮은 아이를 안은 호로시로바 이리나 씨(38세)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

호로시로바 이리나 씨의 남편은 자녀 셋과 만삭인 아내를 국경까지 바래다주고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향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자녀가 넷이면 예비군 징집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호로시로바 이리나 씨의 출산까지 한 달여를 기다리기에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의 전황이 썩 좋지 못했다. 자녀들이 살아갈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도 호로시로바 이리나 씨의 남편은 징집을 마다하지 않았다.

“3월 1일 세 아이의 손을 잡고 몰도바 국경을 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국경을 넘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을 의탁할 시설이 여의치 않으면 숙소를 구해서 출산과 몸조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국경에 와 계신 스테우체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섬김과 배려 덕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하고 넷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3월 1일 세 아이의 손을 잡고 몰도바 국경을 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서 국경을 넘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을 의탁할 시설이 여의치 않으면 숙소를 구해서 출산과 몸조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국경에 와 계신 스테우체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섬김과 배려 덕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하고 넷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한 명이라도 더 섬기기 위해...

스테우체니교회처럼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많은 교회가 시설을 난민 수용시설로 탈바꿈해서 난민들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스테우체니교회를 섬기는 요안 선교사와 스테우체니교회 성도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마음 놓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되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스테우체니교회를 수



사진은 왼쪽부터 몰도바 우크라이나 난민수용시설 지원과 스테우체니교회에서 자녀를 출산한 우크라이나 난민 호로시로바 이리나 씨.

용시설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멋진세상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좋은 환경과 음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우체니와 부지니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시설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전황이 거세지면서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침대를 놓고 서라도 우크라이나 난민 한 명이라도 더 섬길 생각입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정부, 국민들은 엑스포, 수련회장, 교회, 아동시설 등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업을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라데시다 씨도 잠시 일을 중단하고 몰도바 엑스포에서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다. 라데시다 씨가 얼마나 다정하게 챙기는지 침울하던 어린 이들이 생기를 되찾고 몰도바 엑스포를 제집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저의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고향에서처럼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자가 저와 같은 심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향에 갈 수 있기를”

몰도바와 루마니아 교회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교회 봉사자들이 우크

라이나 난민들이 전쟁 피해를 당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과 생이별 해서 동정하고 돕는 게 아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다. 동정을 베풀고 받는 집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교회와 봉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하더라도 더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한 가족처럼 함께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언제든지 고향에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다. 호로시로바 이리나 씨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넷째 아이를 아빠 품에 안겨 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남편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가족처럼 맞아주시는 성도님들과 봉사자님들 덕분에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마음과 물질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호수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될 몰도바 부지에니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부지에니 난민 수용시설에는 고려인들이 모여있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고려인 우크라이나 난민 21명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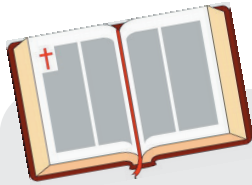
국행을 돕기로 했고, 이들 중 16명은 지금 조상들의 고향인 한국에 오는 여정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함락을 목표로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로 관심을 돌리면서 그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마리우폴, 부차 등의 도시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부차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양국의 평화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국경을 맞댄 몰도바(우크라이나 난민 42만 명)와 루마니아(우크라이나 난민 75만 명)도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양국의 국경을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넓게 맞댄 몰도바 국경이 조금 더 분주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계속 섬기기 위해서는 국경과 우크라이나 난민수용 시설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주루마니아 한국 대사, 우크라이나 드니로프 시장, 루마니아 씨레트 시장 등을 만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우크라이나 난민 시설을 운영하면서 몰도바와 루마니아 난민 수용시설들과 협력한다. 앞으로도 집기, 식료품, 구호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또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난민들에게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 교회, 봉사자들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 일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 02-2271-2248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1-52905,

예금주: 사)더멋진세상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 부활, 우리의 소망

베드로전서 1:3~9

“예수님의 부활로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고, 고통받는 이때 맞이하는 부활 주일은 이전보다 더 소중합니다.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지,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얼마나 불확실한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절망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불안과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 매튜가 오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물일곱 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비극을 겪은 지 1년 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은 부활절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부활은 사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은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의심과 혼란, 그리고 비통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주일은 소망과 기쁨, 그리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이 세 가지 날을 수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던졌던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고통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심과 혼란, 비통의 날을 어떻게 견뎌낼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기쁨과 승리의 날에 이를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부활절입니다. 답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가르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소망에 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그는 실패했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모든 주제와 그들이 세상에 전한 모든 소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에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3절).

3절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며 동시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찾아온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 맹목적인 소망입니다. 그것은 곧 죽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과거의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닿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가? 베드로가 고백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살아있는 소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이 약속되었다

첫째,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4~5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예비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때 땅을 분배해주셨습니다. 미래에 정복해야 할 것이지만 미리 약속하심으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일 중의 하나는 ‘하늘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된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는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동굴과 지하도시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서 믿음생활을 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동굴과 지하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그들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하 대피소에 숨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얻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속한 유업이 아닌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때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핍박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지하동굴에 숨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엡 1:18~19).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게 한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

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6~7절).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은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로 단련되는 것 같은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가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유업과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동시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패전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구축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고전 15:24~25).

세상의 마지막,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가 올 것인데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시험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이 클수록 더 큰 영광과 존귀함이 됩니다. 이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어느 수역에 가 보면 표면의 해류 방향과 깊은 곳의 해류가 정반대로 흐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파도가 휩쓸려 와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 같지만, 성도들에게는 바다 깊은 곳에 물줄기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듯이 이 땅의 모든 게 끊어질지라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셋째,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더욱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14면에 계속〉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지금, 또다시 생명나눔의 기적을!

자발적 무상 헌혈 역사와 현재 혈액 수급 상황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과 시위 현장에서 혈액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다. 전쟁, 침략, 민주화운동 등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 가운데도 헌혈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혈 역사는 4.19혁명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 자발적 무상 헌혈이 그때부터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를 사고팔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를 나눴다.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덕분에 많은 부상자가 생명을 지켰다. 지금, 또다시 생명나눔의 기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혈액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4월 19일 기준 혈액보유량이 4일분에 불과하다. 100일 넘도록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코로나19 완치자와 백신 접종자에 대한 헌혈 참여 제한 규정(확진자는 완치 이후 4주, 백신 접종자는 7일 동안 헌혈 제한) 등의 영향으로 헌혈하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살릴 피가 턱없이 부족하다. 교회와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 피를 환자들에게 수혈해주세요!”

1960년 4월 20일 새벽 대한적십자 혈액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전날 있었던 4.19혁명 시위 현장에서 다친 학생들에게 헌혈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학생, 의사와 간호사, 외국인까지 헌혈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날만 62명이 헌혈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나라 자발적 무상 헌혈의 시작이었다.

우리나라 초창기 혈액 수요는 거의 전량 매혈(賣血, 혈액을 사고파는 행위)에 의존했다. 피를 사고팔던 시절이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와 돈을 바꿨다. 1960년 4월 19일 서울 시내에 울린 총성이 매혈의 역사를 헌혈(獻血,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의 역사로 바꿔 놓았다.

1960년 4월 19일을 ‘피의 화요일’이라 부른다. 그만큼 그날 시위 현장이 참혹했다. 당시 보건사회부 집계에 따르면, 무차별 발포로 4월 19일 하루 동안 사망 186명, 부상 316명이 발생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서는 한 꺼번에 많은 사상자를 수용해야 했고, 긴급하게 대량의 혈액이 필요했다. 갑작스레 몰린 환자들에게 수혈할 피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섰다.

“이날 약 40세 가까운 부인은 서울적십자 병원 구내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피를 뽑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인이 군인이며 성은 이 씨라고만 말하는 부인은 묻는 말에도 그저 눈물뿐이었다. 이 혈액원을 찾아와서 피를 제공하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었다”(조선일보, 1960.4.22).

“18일 밤, 종로 4가에서 부상한 학생 3명이 응급 수용되었다. 19일에는 하오 2시부터 15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밀어닥쳤다. (중략) ‘저희들 피를 뽑아 부상자들에게 수혈해 달라’고 남의 집 식모살이의 고달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채혈을 간청하는 10대 소녀도 있었다. 병원을 찾아온 40여 명의 희망자 가운데에는 10대의 중고교생들도 꽤 많아 이들은 되돌려 보내야 했다. 이러한 남녀 학생들의 희생적 헌혈 덕분에 수혈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눈물 어린 이 인정 미담은 병원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의사시보, 1960.4.22).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병원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이와 성별을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병원을 찾았다. 한 병원에서는 자신의 피를 뽑아 부상자에게 수혈하는 의료진도 있었다. 모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당시 적십자 소식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4.19혁명 부상자 치료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총 35명의 피를 받았다고 한다. 혈액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혈액까지 긴급 방출해서 총 129병을 서울 시내 6개 병원(현재 기준 시립 순화병원, 서울의대부속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성모병원, 이대부속병원)에 공급했다. 그때 나뉜 혈액이 수많은 부상자의 생명을 구했다. 그야말로 생명나눔의 기적이었다.

4.19혁명 당시 일어난 헌혈 운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 헌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헌혈은 피를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1961년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74년부터 매월로 중당했던 혈액 수급을 헌혈로 대체했다.

62년 전 시작된 생명나눔의 기적이 지금까

4·19犧牲者에 눈물어린同族愛



4.19혁명 당시 보도된 시민들의 자발적 무상 헌혈 기사.

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누고 있다. 그 기적 같은 나눔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

지금, 또다시 생명나눔의 기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혈액보유량이 4일분(0형 3.6일분, A형 4일분, B형 4.4일분, AB형 4.2일분)이다. 혈액수급위기 ‘관심 단계’다(4월 19일 기준).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17,751명의 헌혈이 더 필요하다.

심각한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6월 5일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76개 교회와 단체에서 성도 4,634명이 헌혈했다(4월 19일 기준).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또다시 생명나눔의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세 번째 헌혈 참여입니다. 교회 덕에 작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 유수지 성도

· 매년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함이 은혜입니다. 어려울 때 작지만 헌혈이란 통로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 김유하 성도

· 계속 헌혈을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헌혈의 집에 갈 형편이 안 되었는데 교회로 헌혈차가 와서 너무 편하게 참여했습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쁩니다.

/ 박숙자 성도

· 다시 한번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참여의 물결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이원탁 성도

·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 김선호 성도

· 주님,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헌혈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 백정현 성도

·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도 나누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피를 헌혈로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김동춘 성도

· “피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직접 입증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의 함께 나누는 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 정영웅 성도

· 아픈 형을 떠나보내고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합니다.

/ 이진선 성도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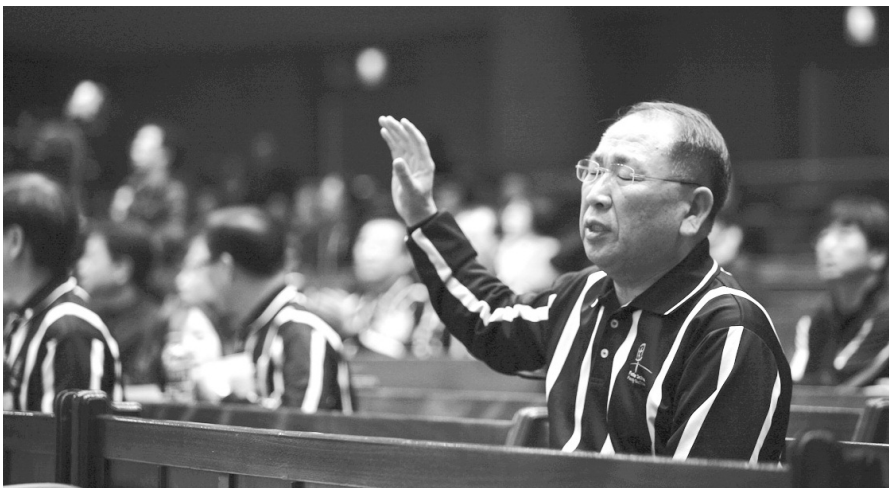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사)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이하 아버지학교)는 1995년 시작됐다. 그동안 수많은 아버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렸다. 1998년 IMF 당시 수많은 가정이 회사에서 밀려나고 좌절했고 가정이 깨졌다. 나라도, 지도자들도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몰라 손 놓고 있을 때 아버지학교가 이 나라 아버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다. 아버지학교는 교회를 넘어 교회 밖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갔다. 아버지학교 역사의 모든 순간에 김성묵 장로가 있었다. 27년 아버지학교를 이끌어온 김성묵 장로가 이제 아버지학교 고문(顧問)이 됐다. 아버지학교를 후방에서 지원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제 인생 최고의 경력과 학력 아버지학교입니다”

아버지학교 고문(顧問) 김성묵 장로의 30년 가정사역 여정



가정사역 30년, 아버지학교 27년을 함께한 김성묵 장로.

김성묵 장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중한 고비를 넘겼다. 체중이 확 줄었다. 그래도 그의 상징인 미소는 변함없었다. 기자가 “27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했더니 김성묵 장로가 이렇게 바로잡았다.

“아버지학교 27년, 가정사역까지 포함하면 30년이 넘습니다(웃음). 제가 처음 가정사역을 하게 된 게 1991년입니다.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저에게 걸어오시더니 ‘내년에도 교회를 위해 봉사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제안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긍휼사역이 하고 싶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정사역이었습니다. 가정사역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성묵 장로가 하용조 목사의 권유를 아내 한은경 권사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한은경 권사가 이렇게 말했다.

“가정사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부부가 같이 해야 할 텐데 저는 싫어요! 집에서 당신 보는 것도 지겨운데, 교회에서까지 함께 못하겠어요.”

아내도 반대하고, 가정사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다. 그래도 기도하며 답을 구하고, 비전과 확신을 얻어갔다. 그 과정에서 김성묵 장로와 한은경 권사부터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다.

“성령님이 저를 가정사역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덕분에 제 인생의 사역을 만나고, 부부 사이도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성묵 장로는 가정사역 첫 시작을 하나님 의가정훈련학교와 신혼부부학교(현재 젊은부부학교)로 시작했다. 아버지학교는 1995년부터 맡아 섬겼다. 그는 아버지학교 정체성부터 재정립했다.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 운동(Movement)으로 탈바꿈했다.

“정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영적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세미나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학교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고 동역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아버지학교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격려해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30년 넘는 가정사역 외길인생, 기억나는 일이 참 많다. 김성묵 장로가 입술을 떼는 순간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수많은 간증 중에서 김성묵 장로가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꼽은 일은 아버지학교가 지상과 방송에 보도된 일이다. 그 방송 덕분에 아버지학교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교도소 보안과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아버지학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교도소장을 설득했다면서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교도소 여기저기서 아버지학교를 했는데 MBC에서 방송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아버지학교라며 이 좋은 걸 방송에서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제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다. 그렇게 아버지학교가 MBC 방송에 나갔습니다. 2000년에는 KBS ‘추적60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IMF로 수많은 남자들이 직장에서 밀려나고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는데 아버지학교에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들었다며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계기로 아버지학교가 세상 속으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알려지고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멘토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성묵 장로의 가정사역 30년, 아버지학교

27년을 그 짧은 대화로 다 들을 수 없었다. 김성묵 장로가 30년 가정사역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 인생 최고의 경력과 학력은 아버지학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고문(顧問)으로 아버지학교를 뒤에서 섬기고 지원하겠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요.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멘토로서 건강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평생 아버지학교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학교 동역자 여러분께

“아버지학교는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어온 아버지학교 리더십 자리를 내려놓으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27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아버지학교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황은철 목사님과 도은미 사모님 부부를 통해 아버지학교를 만났고,故 하용조 목사님이 저에게 아버지학교 비전과 방향, 아버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아버지학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권준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러 동역자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아버지학교는 수많은 동역자의 땀과 눈물, 뜨거운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가까이 자신의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드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로 달려간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미쳐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 아버지학교에 미쳐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라고 했던 아내가 저의 사명과 비전을 누구보다 이해해주었습니다. 경영하던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학교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성완 이사장님과 여러 리더십에게 당부의 말씀

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학교는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에 더욱 정체성을 확인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으로 살아가고, 가정의 목자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교회 지도자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학교 운동의 정체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입니다. 아버지학교의 본질은 성령 운동, 삶의 실천 운동, 연합운동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학교는 삶의 실천 운동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아버지는 영향력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아버지로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아버지 운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주 먼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긴밀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지부와 지부가 서로 연합하고, 국내외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간다면 아버지학교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학교는 제 인생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남은 날들도 아버지학교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버지학교운동을 하신 분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 김성묵 장로(두란노아버지학교 고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교사 모집

4월 23~24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의미 있는 날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 장애인사역본부다. 연령별, 장애유형별로 꿈사랑부(장애 아동), 사랑부(장애청소년), 예수사랑부(발달장애 청년), 누리사랑부(지체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장애인 예배공동체에 726명(장애인 408명, 교사 318명)이 소속되어 있다. 그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매주 천국 잔치를 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함께 할 교사와 서포터즈(단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교사가 90명 정도 더 필요하다. 장애인 예배공동체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사가 일대일 매칭을 해야 하는데, 교사가 부족하면 장애인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 한계가 생긴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쾌적한 예배 환경을 지원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이강천 교사(예수사랑부)와 조태형 총무(사랑부)는 “장애인 예배공동체 교사로 섬기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강천 교사(예수사랑부, 사진 왼쪽)와 조태형 총무(서빙고 사랑부, 사진 오른쪽)가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이강천 교사(예수사랑부 팀장)는 장애인 예배공동체만의 아주 특별한 감동과 순수함이 있다고 고백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장애인들은 정말 순수하고 온전하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제가 정화되는 것을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섬기는 일이 어려울 때도 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공동체에 굉장히 활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버스나 기차를 타고 훌쩍 떠나는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예배드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도 얼른 뛰어났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려는 것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다 보면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힘들고 아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좋고 즐거운 일이 훨씬 많다. 이강천 교사는 더 많은 성도가 교사가 되어서 자신이 경험한 감동과 기쁨, 위

안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다.

“장애인 예배공동체 교사로 섬기려면 특수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어려워하고 꺼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셔서 참관부터 하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장애인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하면 정말 큰 감동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태형 교사(서빙고 사랑부 총무)는 10년째 사랑부 예배를 섬기고 있다. 사실 그는 온누리

교회에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해 무지했다.

“사랑부 지체 2명이 주일예배에서 특순하는 걸 봤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장애가 생겼는데, 장애가 있으면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특순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장애인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장애인 예배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태형 교사는 그때부터 사랑부 교사로 섬겼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특성과 장애 유형에 대해 잘 몰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랑부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한 저와 함께 한 시간을 기쁜 추억이라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조태형 교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비결은 ‘관심’과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교회 카페에서 산만한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분이 ‘왜 애를 방치하느냐?’며 따져서 그 부모님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별도로 마련해달라고 하면 ‘여기가 장애인교회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항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장애인 예배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모두 장애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장애인에게 작은 관심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보다 더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과 사소한 배려, 관심만 있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즐겁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문의: 010-8540-5919

목회칼럼

“함께여서 신난다, 함께여서 힘난다!”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장애인 사역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장애우’와 ‘장애인’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이냐는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장애우’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정적으로는 ‘장애우’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장애인에 대한 최선은 얼마나 배려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면서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얼마 전 사사기에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부르신 장면을 묵상했다. 원어로 보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사사를 부르시는 것과 똑같이 에훗을 부르셨다. 사람들에게는 장애로 인한 차이가 함께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차이일 뿐이다.

이 땅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편견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오히려 장애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고착시킬 수 있다. 사랑채버와 온사랑합창단 단원 중에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지체들이 있다. 사랑채버와 온사랑합창단 공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편견이 있으면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으로만 본다. 하지만 편견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노력해야 할 것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하기 위한 걸음으로 탈(脫)시설이 장애인 정책의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과 관련

법안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사실은 탈시설은 시작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시설과 법안들의 미비로 생겨나는 갈등이다.

2019년 개봉한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머리는 비상한데 지체장애자인인 세하(신하균)와 수영을 잘하는 발달장애인 동구(이광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는 포스터 문구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함께여서 신난다, 함께여서 힘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서 힘나고, 함께해서 신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뤄지기를 꿈꾼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려면 교사와 서포터즈가 많이 필요하다. 많은 성도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한다.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사명 '혐오사회에 사랑심기'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

어른들의 이해와 사랑이 꼭 필요한 아동·청소년

갈등과 다툼, 분열이 만연하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 '혐오의 시대'라 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혐오(嫌惡)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다른 세대와 성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의 이웃을 품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를 잣대로 세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경계 대상이 된다. 그 잣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혐오 대상이다. 혐오 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이 삭막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한다. 이 지면에서는 '장애인 혐오', '아동·청소년 혐오', '노인 혐오', '젠더 혐오', '자기 혐오'를 주제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본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아동·청소년 혐오'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의 첫 대사다. 소년 심판은 소년범죄를 다루는 소년형사합의부 판사들과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10부작 드라마다. 드라마 주인공 심은석(배우 김혜수)은 소년범들을 혐오하는 원칙주의 판사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소년범들이 재판을 마치고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보호처분이 끝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고민한다.

심은석의 시선이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기자 역시 같은 생각을 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난폭한 소년범죄를 떠올리면 화가 치밀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길 거라는 입장이었다. 소년범들은 교화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기자 역시 그들을 혐오했다.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인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이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더구나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범의 나이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처벌 불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보호처분, 형사처분 가능)으로 구분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를 보면서 소년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전



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년범의 취지는 소년범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선도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라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소년범죄 처벌 강화는 어쩌면 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빼앗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누군가는 "갱생이 불가능하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소년범죄가 개인의 문제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 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라는 환경이 범죄라는 선택지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속담을 거꾸로 생각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 없이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

하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어른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논란을 빚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이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한다.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소란을 피우는 어린이들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안이다. 식당 앞에 “13세 이하 아동 출입 금지”, “소리 지르는 아이 출입 금지”, “우는 아이 출입 금지” 등의 안내문을 붙인 영업점이 늘고 있다. 2021년 노키즈존을 표시하는 지도(구글 지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약 420개 이상 노키즈존이 존재한다.

노키즈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찬성에 속한다. 2019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천 명 중 66.1%가 “노키즈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69.2%가 “차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막기 위해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아동 혐오적인 행동이다. 노키즈존은 작은 피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각박한 현대 사회의 모습이 투영된 하나의 공간이다. 노키즈존에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며 산만하게 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들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 단계와 속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다. 시끄럽고 산만했던 그 시절을 무사히 지나온 것은 수많은 어른의 배려와 사랑 덕분이었을 것이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 이해와 사랑이 꼭 필요하다.

혐오에서 벗어나는 '어렵지 않은' 방법

혐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는 않게 된다. 더 나아가 상대를 이해하고, 불편함을 참아주는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행동이 불편하다. 순간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참아준다면 그 아이들이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배울 수 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저절로 고개가 저어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선부터 판단일지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어른들이 많아진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 이해와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보여주는 선교!

최명현 선교사가 제안하는 중앙아시아 무슬림 선교

국내에 있는 이슬람 사원 170여 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무슬림 인구가 26만여 명이다. 그중에서 6만 명은 내국인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무슬림을 어떻게 품고 선교해야 할까? 화성 온누리M센터를 섬기는 최명현 선교사가 국내 중앙아시아 무슬림을 어떻게 품고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최명현 선교사는 “건물뿐인 무슬림 사원을 걱정하기보다 성도가 삶으로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주



최명현 선교사
(화성 온누리M센터)

최근 개그맨 최양락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최양락 씨가정이 국내에서 공부하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생과 오래전부터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영되었

기 때문이다.

나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전에는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활동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다.

나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중앙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잊은 적이 없다. 2015년 어느 날 용인시 양지면 버스 정거장에서 편의점 와이파이(WIFI)에 의지해서 가족과 전화통화 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슬림을 만났다. 중앙아시아에 가야 만날 것만 같았던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내 집 앞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 친구와 교제를 이어갔고, 그를 통해 꽤 많은 우즈베키스탄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었다.

한국이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음을 여러 곳에서 듣고 있다. 1999년 내가 선교지에 갈 때만 해도 진리가 있었다. 이제는 진리가 무너진 지 오래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영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믿음의 고백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인가를 믿기를 꺼리는 마음이 결국 시대정신의 최고 자리에 앉히는 심성을 낳게 된다...”

한국도 영국과 비슷하게 바뀌고 있다. 교회가 이주민들을 향해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되는가?”

“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략)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들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요 1:3~7).

세상의 변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외국인 수가 200만 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무슬림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특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무슬림들에게 보여주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무슬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다.”

상당히 많다. 2021년 12월 기준 전체 국내 외국인 1,956,781명 중에서 약 5%인 104,535명이 중앙아시아 출신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슬림은 대도시에는 유학생으로, 중소도시에는 근로자의 모습으로 분포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의 순수 무슬림 수는 약 80,095명이다. 국내 외국인 무슬림을 26만여 명으로 가정했을 때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곳곳에 이슬람 사원을 열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주 강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무슬림들은 국내에 더 늘어날 것이고, 무슬림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도 늘 것이다.

한국은 이제 전통적인 불교, 유교,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무슬림을 위한 할랄마트와 핸드폰 가게, 할랄식당이 즐비하다.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과거에는 무슬림의 거주지인 안산이나 김해 같은 곳에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화성시, 아산시, 군산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 상황에 무관심하다. 다원주의, 개인주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교회는 주저하고 있다. 그사이 무슬림 이주민들이 동지를 찾고 있다. 이슬람 사원을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가?”

근로자, 결혼 이주자가 끝이 아니다
수백여 명의 무슬림 유학생도 있다

국내 유입되는 무슬림 이주민이 근로자나 결혼 이주자가 끝이 아니다. 수백여 명의 무슬림 유학생도 있다. 그들도 교회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이 165,048명 정도인데,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약 6.6%(11,005명)를 차지한다. 대학에도 무슬림 유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들은 각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이슬람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학생 대부분이 공부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더 있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을 이슬람 사원에 헌금하기도 한다. 이슬람 사원에서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얼마나 기특할까. 이슬람 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유학생들이 대낮에 운동장에서 버젓이 이슬람 기도를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유학생이 매년 10% 증가하고 있다. 대학 선교단체와 크리스천 교수들의 적극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센터를 운영하며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석대학교에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00명, 세종대학교에는 300명이 있다. 여러 대학에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의 중앙아시아 무슬림 유학생이 있다.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의 이탈률이 50%가

넘는다는 법무부의 통계가 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돈 벌기가 쉬운 한국의 환경에서 유학생 혼자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천안의 성환이라는 곳에 작은 화장품 사업체가 있다. 이 업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사무실에 초청해서 비즈니스와 유학생의 전공 분야에 관한 대화를 한다. 교제와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1~2년 후에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무슬림 유학생들과 관계 맺는 것은 시간 많이 걸린다. 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몇 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무슬림에게 성도의 삶 보여주기!

그동안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슬림 사원 말고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알라신을 향해 기도한다면 일단 경계의 대상이 된다. 많은 교회와 사회 단체들이 쉼터를 제공하지만, 개종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무슬림들이 발을 잘 들여놓지 않는다.

교회 역시 무슬림 전도를 교회 건물에 데리고 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무슬림도 교회의 의도를 알고 있다. 그 사실을 교회만 모른다. 이슬람 사원에서는 무슬림들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 언제든지 친구들과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눌 수 있다. 이슬람 사원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다. 장식도 없고, 흔한 테이블 하나도 없다. 설교단과 이불 몇 개, 발 씻을 곳뿐이다. 무슬림들은 교회를 본 적이 없다. 무슬림들이 교회에 가면 일단 신경 쓰이는 게 많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슬림들을 전도할 때 교회로 데려가지 않는다. 일상에서 만난다. 무슬림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본다. 무슬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무슬림을 만날 때 당장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다. 무슬림을 다른 성도에게 보여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무슬림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특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무슬림들에게 보여주자. 빠르게 생겨나는 이슬람 사원을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무슬림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다.

라떼는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위한 어리석음

“직장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관리자(임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단도 아닙니다. 팀장님은 과장님을 지적하고, 과장님은 밑에 직원을 지적합니다. 상사의 지사 사항을 후배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잔소리로 치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저를 쫓대 취급할까봐 지적도 주저하게 됩니다. 애매한 위치에 처한 제 자신이 처량하고 쓸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직장생활을 해본 선배로서 지금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처음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다. 사회(은행)에 첫발을 디딘 날 지점장님과 커피 타임에 나눴던 대화가 문득 생각났다.

지점장님이 내게 “첫 출근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자네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출세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하셨다. 나는 당연히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지점장님이 선배로서 비결을 가르쳐주겠다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방법은 딱 두 가지네. 하나는 자기가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고 원만한 대인관계

를 유지하며 좋은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야.”

나는 두 번째 성공법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 부하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상사가 탐욕스럽게 느껴진다. 실무자의 고충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침묵하는 중간관리자 역시 비겁하다고 정죄하기 쉽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밟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철저한 윤의 입장을 강요받는다 생각하면 낙심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장이란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터전이다. 크리스천들에게 직장은 또 다른 사역의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 1:2~3).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랬듯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냉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

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도 받은 자로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함에 있다는 비전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통이 수반되는 중에도 모든 것을 주님이 맡기신 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권력욕과 성공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참 주인이고 필요한 곳에 내가 너를 보냈다. 거기가 많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을 기초로 힘든 직장에서 심리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는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선포하기를 감히 권면한다. 세상의 자기중심적 관점으로는 오직 주님 뜻대로, 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서 기인한 어리석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한 어

리석음이다. 세상의 어떤 동정 어린 시선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직장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변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해 주신다(롬 8:27).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고전 2:9~11).



양준홍 장로
(갈렙청년부 멘토)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는 코너이다. 고민이나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크리스천을 위한 가족상담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어느 가정에 대학에 갓 입학한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수(再修)를 고민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어렵게 들어간 학교와 학과인데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재수를 고민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신중하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졌다.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아버지도 힘들었던 재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 시험을 다시 준비하고,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더니 선후배, 친구 관계가 얽혀서 힘들었던 불편한 감정과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을 아들도 경험할 것 같은 불안이 생겼다. 자신의 불안을 아들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불편했지만 아버지는 용기 내서 아들에게 자신의 재수 경험과 불안을 나누었다. 이후 아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재수했고 결과는 아버지의 불안과 달랐다. 아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했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다. 만약 아버지의 불안으로 인해서 아들의 진로를 막았다면 아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불안은 확인된 실제 없이 막연하게 마음에서 경험하는 불안정한 상태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

다. 정상적으로 불안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안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하지만 막연한 상황에서 생기는 불안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절망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어떤 불안이든 불안의 성격은 개인적인 심리적 느낌과 경험에 의한 것이 많다.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을 향해 전이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삶의 긍정도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지만, 삶의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도 큰 전파력이 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불안은 여과 없이 전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 불안지수가 높은 경우 대부분 자녀도 불안 수준이 높거나 우울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불안은 세대를 넘어서 전수된다. 더 건강하고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고자 한다면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통제하거나 인식하고,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의 실체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외적 도움이 필요하다.

불안은 전염된다. 부모의 불안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 불안이 증폭되어서 전달되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불편하고 불안했던 경험이 내면에서 올라와 그것을 표출

하게 된다. “그 일 하지마!”, “잘 안될 거야”, “얼마나 힘든데”, “사고 나면 어떡해”, “내가 겪어봐서 잘 알아” 등 부모의 불안이 부정적인 언어를 타고 자녀의 마음에 심어지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강화시키는 말들로 인해서 동일하게 불안을 답습한다.

부모의 불안은 부모 안에 머물러야 한다. 부모가 겪었던 불안한 경험, 불행한 경험을 자녀도 동일하게 겪게 될 거라는 신념은 왜곡된 확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축적하면서 살아간다.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웠던 경험까지 의식 혹은 무의식 영역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경험은 인간이 삶을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어떤 충격적이고 강력한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자녀를 대하는 데 부모의 불안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 억압, 불안 전가, 부정적 예언, 잔소리, 끊임없는 걱정, 잦은 전화, 억압,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 부모가 자녀의 결정과 행동을 보면서 지혜로운 충고를 전달해줄 때가 필요하다. 자녀가 못 보는 것을 부모는 볼 수 있고, 자녀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혜

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조언이나 충고가 지나치면 억압과 속박이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언을 해주더라도 최종 결정은 자녀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의 불안에서 시작된 염려가 동기가 되어서 자녀의 결정을 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소년 혹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 등이 혹시라도 부모의 불안과 염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불안이 마음 울타리를 뛰쳐나가 자녀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빌 4:6~7).

나눔: 최근 자녀의 결정, 혹은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먼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시고, 그것을 배우자와 나눠 보세요. 필요하다면 자녀와 마음의 대화를 하는 시간도 가져 보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신앙을 깊게,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책

과거를 비우라, 바라보라, 달려가라!



《신앙의 사계절》
이정환 저 | 쿠팡출판사 | 12,000원

“365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계절 동안 우리네 인생에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깨우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게 하도록 이 책을 썼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지치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책을 펼쳐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시므로”

책 《신앙의 사계절》의 요지는 저자의 이 말로 요약된다. 이정환 목사(양재 열린새신자예배, 도곡 담당)가 자신의 목회경험과 배움을 토대로 쓴 심리치유 서적 《내 마음이 아픕니다》(쿠팡출판사),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토기장이)에 이어 세 번째 책 《신앙의 사계절》을 펴냈다. 성도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깃들여있다.

저자는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했다. 믿음의 싹이 돋아나는 봄, 신앙이 성장하는 여름,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보는 가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겨울이다. 계절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피고 자라는지를 살펴보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준다.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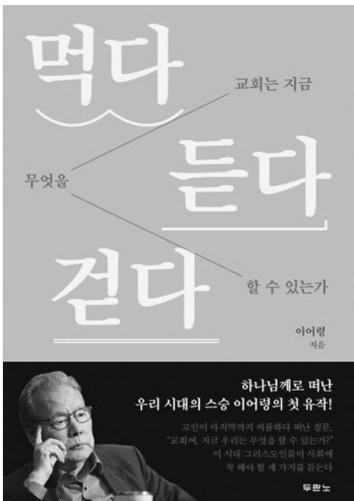
저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세 가지 영적 자세를 권면한다. 첫째, 과거를 비우라.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둘째, 바라보라. 내 삶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셋째, 달려가라. 고난의 때에도 절대 신앙의 길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 책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고 성장시키시는지를 보여준다.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 상담 장면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새신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지치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참 좋다. 알맞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두란노 신간

교회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저 | 두란노 | 12,000원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며 사회 속으로, 세계 속으로 온몸을 다 드러 참된 생명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부담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 속에 어느 때보다 잔혹한 빈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빵은 죽는 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빵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빵,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로서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먹다, 듣다, 걷다》는 ‘교회가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故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주제 콘퍼런스’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기 위해 먹고, 듣고, 걷는 행위로 뛰어드셨는데, 인간이 이를 다시 추상화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체성을 책 《먹다, 듣다, 걷다》로 표현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온 평생을 다해 걸으며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 최초의 장애인 교육자 ‘오봉래’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헬렌 켈러’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다. 평양맹아학교에서 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쳤던 한국 최초의 장애인 교육자 ‘오봉래’다.

오봉래는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오석형과 노수잔)는 평양에서 의료선교를 하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서우드 홀 부부의 첫 번째 신자였다. 당시 로제타 선교사는 평양에 시각장애인이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서양 사람들이 악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눈을 뽑아 간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있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석형의 딸 오봉

래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니 내 의도를 곡해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점자를 가르쳤다.

“봉래를 가르치기 위해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점자를 개발했다. 봉래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다가 총명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로제타 홀 선교사 일기 중)

오봉래는 1898년 여름,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 처음으로 한글점자(평양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총명하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았던 그녀는 불과 1년 만에 로제타 홀 선교사가 준비한 모든 점자 교재를 읽을 수 있었다. 점자로 글을 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오봉래가 점자를 배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시각장애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를 계기로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학교 ‘평양맹아학교’가 설립됐다. 성인이 된 오봉래는 평양맹아학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독립생활기술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도 했다. 오봉래는 고등 맹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도쿄에 유학하고자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학비를 마련한 오봉래는 1914년 일본으로 넘어가 도쿄맹아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4년 만에 도쿄맹아학교 기예과와 침안과를 졸업했다. 조선의 장애인 여성이 일본에 유학하고 학교를 졸업한 것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모든 학기를 마친 그녀는 1917년 한국에 귀국해서 평양맹아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919년 겨울 유행성 열병으로 소천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영롱한 아침 해로 뿌려 주는
하늘의 기쁨을 한 아름 안고
우아한 눈길 어디를 바라보나

꿈직한 밤의 아픔을 털고
날아오르는 날개의 활갯짓
천상의 미소는 누가 피우나

‘천상의 미소’

무슨 웃을 입어야 어울릴 건가
어떤 춤을 추어야 제격일 건가
어떻게 노래 불러 보답하려나

눈물짓나 거기에 침몰 않지
탄식하나 거기에 결박 안 되지
이기나 거기에 취하지 않지



지난 부활주일(4월 17일) 오사카온누리교회 세례식.

온 누리에 부활의 기쁨이 활짝!

예배 재개하고, 선물 나누고, 세례 받고

지난 주일(4월 16~17일) 온 누리에 부활이 기쁨이 활짝 폈다.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주일예배에서는 부활절 칸타타를 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토요일 1~2부 버금미션과이어 '도마의 고백', 일요일 1~4부 온누리 워십과이어 '예수 그리스도',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일예배 1~4부 뮤지컬찬양팀 '예수의 부활'을 주제로 웅장하고 감동적인 칸타타를 선

보였다.

남대문희망공동체(용산구 한강대로 363-2 ISB빌딩 2층)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고, 감사의 선물을 나눴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남대문5가 쪽 방촌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배공동체다. 코로나19로 스태프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날 대면 예배를 재개했다. 김춘찬 형제는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 봐서 좋고,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사카온누리교회에서는 아주 뜻

깊은 세례식을 했다. 성인 남성 4명이 세례 받고, 2명이 입교했다. 세례 받은 성도 4명 모두 70대 이상으로 오랫동안 가족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기에 더욱 뜻깊었다. 하야시다 성도는 "내 죄를 쓰면 성경의 반 정도 될 것 같다"고 회개했고, 기노시다 성도는 "이제는 딸과 손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5월 21일~6월 18일 매주 토 오후 4시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Zoom)으로 강의한다.

참가 대상은 이혼한 남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다. 수강신청은 5월 2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

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2539-5665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5월 1일~5월 29일 매주 일 오후 1시 30분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배우는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창조신앙스쿨은 창세기 및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말씀에 기초한 창조론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4658-0987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5월 27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2-2182-9110

파워임팩트 참가자 모집 청소년반, 부모반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이하 파워임팩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은 6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청소년반은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중1~고3 청소년 및 부모 15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반 3만 원(형제, 자매 함께 신청하면 2인 5만 원), 부모반 3만 원(부부 함께 신청하면 2인 5만 원)이다.

파워임팩트는 가정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함께 예배하며,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청소년반은 '미술로 만나는 자아', '청소년기 이해와 소통'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부모반은 '부모의 정체성과 역할',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문의: 010-4548-1522

두란노아버지학교 '2022 지부장 대회'

최성완 이사장 취임, 김성묵 장로 위임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사)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이하 아버지학교)가 지난 4월 16일(토) '2022 지부장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아버지학교 전국 지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거룩한 절박함'을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지난 27년 동안 아버지학교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수고했다"면서 "그 소명을 재확인함으로써 하나님

하는 아버지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김성묵 장로가 이임하고, 최성완 장로가 취임했다. 김성묵 장로는 이임사에서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뒤에서 섬기겠다"고 말했다. 최성완 장로는 "아버지학교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많은 동역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 정현주 기자

CGNTV '사랑으로 함께' 2억4천만 원 모금

강원,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 돕기

CGNTV가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에서 2억4천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액 전액은 기금은 강원, 울진

주후 CGNTV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뽕살뽕교회(담임 김형익 목사), 양의문교회(담임 박요한 목사) 등에서도 부활절 헌금으로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다.

온라인 헌금 유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자리 입력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성도들에게 온라인 헌금(계좌 송금)할 때 유의사항을 거듭 당부했다.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생년월일)를 함께 입력하고 송금해야 한다. 이름만 입력하면 다수의 동명이인 발생으로 인해 정확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5월 17일과 24일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온라인 세미나가 5월 17일과 24일 열린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28년째 선교사역을 하는 임은미 선교사가 강의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성

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영상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시청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65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5월 14~7월 2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보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해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피플퍼즐', '행복의 실체와 그림자', '남편 책임, 아내 책임', '부부치유', '성령이 충추는 가정', '가게도', '아버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5274-9350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유미나 성도(북누리공동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온누리교회에 왔다. 온누리교회 성도였던 남편을 따라 북누리공동체에 소속되어 예배를 드렸다. 순장님을 통해 큐티스쿨을 알게 되었고,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큐티스쿨 강의를 필수라고 해서 5주 동안 훈련을 받았다.

큐티스쿨을 수강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았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내 입술의 고백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2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갈망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큐티책으로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과 벽이 느껴졌다. 매번 실패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드디어 만나주셨다. 20대 후반부터 여러 신앙훈련을 받게 하셨다.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 갈급한 나를 계속 말씀으로 먹여 주셨다.

하나님과 관계는 가까워졌지만 나에게 큐티는 늘 어려웠다. 여전히 어렵기도 하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 그

런지 사단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방해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그 집중을 깨어놓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늘 붙들고 계셨다.

큐티스쿨 강의를 듣는 5주 동안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묵상에 대한 실패감을 씻음 받고 힘이 자라는 대로 말씀을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 겸손함도 배울 수 있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귀한 가르침도 주셨다.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강의를 들었던 10명의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순종을 따라서 나도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앞으로도 큐티와 말씀 묵상은 힘이 자라는 대로 계속하려 한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려 한다.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계속 성숙하게 하시리라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의 도움 요청



/ 송인선 집사(부천온누리교회)

“미얀마 카렌족을 도와주세요!”

미얀마 카렌족은 1988년 미얀마 정부군의 반군 토벌을 피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피신했다. 그 이후 미얀마 카렌족은 유엔난민기구에서 마련한 임시 난민 캠프(메라 템퍼러리 셸터)에서 기약 없는 난민 생활을 시작했다. 미얀마 카렌족은 재정착지를 찾아 어디론가 떠나고자 했는데 선뜻 받아주는 국가가 없었다. 그들은 유엔 난민 임시캠프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 미얀마 카렌족의 인구가 증가하자 유엔난민기구에서 OECD 국가에 협조 공문서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연간 30여 명 규모로 미얀마 카렌족 중심으로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미얀마 카렌족이 입국했고 1기부터 7기까지 44가구 171명을 수용했다. 1~3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7기는 김포시 양곡동에 재정착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유엔 난민 임시캠프에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

코로나19 이전에 재정착한 미얀마 카렌족들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재정착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2019~2020년(5기~7기)에 입국한 재정착 난민들은 멘토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에서는 부평에서 생활하는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모두를 생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일손이 없어서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방문을 못 하고 있다. 재정착 난민 1가구 자녀들이 평균 3~5명이다. 대부분 학교 성적이 뒤에서 1~2등을 차지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학교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 있는 가정 중에 여섯 가정만 컴퓨터가 있다. 우선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해주고자 한다. 또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가고 싶다. 모니터링 자료는 매년 새롭게 수용되는 재정착 난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돕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교육용 컴퓨터 및 노트북 10대(상태 양호한 중고도 가능)와 재정착 난민 가정 모니터링 인건비(2천5백만원) 후원을 부탁한다.

문의: 010-2756-3229

■ 세례 간증



/ 송하은 성도(한강공동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동안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믿어왔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다. 잘 생각해보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런 나에게 임신이라는 사건은 실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제한된 이성과 감각으로 최대한 유사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배 속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임신 초기에는 작은 몸의 변화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생명은 분명히 존재한다. 작은 심장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매 순간 생명을 위해 펌프질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과 행동, 삶의 방향이 통째로 바뀌어버렸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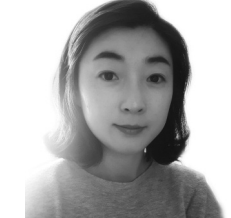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만져보다가 새삼스럽게 신앙고백이 터져 나온 그날 아침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이미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는 것을 실감했다. 우주의 섭리가 응축된 생명의 시작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체적으로 느껴졌다.

모태신앙인 내가 몰랐던 사실이 아닌데도 모든 것이 새삼 진심으로 믿어졌다. 소름이 돋았다. 무엇보다 ‘그저 주어졌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임신이 우리 부부가 내려놓는 순간 선물처럼 찾아왔다. 믿는다는 것마저 내 의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깨달았다.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로서 자꾸만 기대가 넘친다. 그때마다 나는 임신했을 때를 다시 떠올린다.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생명이다. 내 의지로 키우는 존재가 아님을 상기하려 한다. 내 계획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종 좌절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아이가 커가는 시간은 분명 셀 수 없는 간증이 될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싶다. 부족한 우리 부부와 아이를 완벽한 주의 계획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권애진 성도(대전온누리교회)

올바른 지식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과학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첫째 아이가 2학년이 되던 지난해였다. 평소처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오는데 문득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오면 나는 어떻게 창조론을 설명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겁이 났다. 내가 믿는 창조론을 아이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조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다가 유튜브에서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수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이해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졌다. 우연히 보게 된 창조신앙스쿨 광고가 또다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번에는 기필코 모든 지식을 내 마음과 머리에 새기겠다는 다짐으로 주저 없이 수강신청했다.

창조신앙스쿨의 모든 강의를 유익하고 좋았다. 특히 우주에 대한 강의가 내 마음을 요

동치게 했다.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오로라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감동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학창 시절 책으로 학습했던 목성과 토성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은 큰 중력을 통해 소행성들을 흡수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소행성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막아내는 보호하심이었고, 지구의 대기권은 또 한번 소행성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이었다. 우주의 신비들은 그야말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가장 훌륭한 과학자이시고, 그분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인간이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 내가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장로칼럼

나를 붙잡지 말라

박봉래 장로
(김포공동체)

처형되기 전부터 예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서리라는 예언을 남겼다.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달라고 청원했다. 빌라도가 시큰둥 하자 청원한 사람들이 스스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다.

새벽이 되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놀란 병사들 앞에 힘센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 정신을 차린 그들이 있는 함꼐 성으로 달려가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예수가 죽은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갔다(외젠 뷔르낭,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외젠 뷔르낭은 두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앞서 달려가는 요한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어둠만 볼 뿐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다르게 보려면 빛이 필요하다. 슬픔에 잠긴 막달라 마리아와 절망에 빠진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그 상황에서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빛을 알아본다는 뜻이

고, 이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는 천사들의 물음에 마리아가 울먹이며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마리아가 뒤돌아봤더니 예수께서 서 계셨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는 예수의 물음에 마리아는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다시 부르자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끌 어안는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안토니오 알레그레 다 코레조, 〈나를 만지지 말라〉)며 만류하신다.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내밀어 만지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고, 다른 여인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도 허용했는데 무슨 까닭일까? 해석이 다양하다. 영화(Glory) 된 몸이 더러워질까 만류했다는 해석도 있고, 지체 말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의미였다는 견해도 있다. 예수께서는 부활한 자신을 만난 기쁨에 빠진 마리아가 빨리 부활 소식을 전하기를 바라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냈다. 이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온 누리에 나누는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무덤으로 가는 제자들



나를 만지지 말라

권사칼럼

사랑의 언어 이해하기!

한은경 권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이사장)

젊은 시절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 일주일째부터 어김없이 매일 한 통의 꽃엽서가 도착했다. 우리 아파트 아줌마들이 그것을 보고 부럽다고 야단이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전혀 감동을 안 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문제였다. 42번째 생일에는 100송이 장미꽃 바구니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약 20년 전 일이니까 그런 이벤트가 흔하지 않았다. 동네 아줌마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나는 그 꽃다발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다. ‘실속 없이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나?’라는 생각이 내 솔직한 느낌이었다.

나는 남편을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철이 없어 보였다. 가정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묘하게 남편이 부담스럽고 친밀감이 들지 않았다. 남편은 이벤트를 잘해주었다. 그런데 집안일은 늘 나 몰라라 하고, 출근하기 전에 목욕탕을 물 폭탄 맞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사용한 수건을 한 장은 장롱 속에 던져 놓고, 또 한 장은 침대 위에 던져 놓고 그냥 나갔다. 어느 때는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마워해서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침부터 바빠서 종종거리는 나를 돕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침대를 말끔히 정리하고 침대 커버까지 씌워 놓았다. 출근하기 전 축복기도를 하고 나를 살짝 포옹하고 가는 남편에게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다. 나는 “침대를 말끔히 정리해주는 걸 보니까”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다음 날부터 남편이 사워하고 목욕탕을 깨끗이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건도 하나만 사용했고, 그 수건으로 목욕탕 거울, 벽, 바닥의 물기를 제거한 다음 세탁기에 넣기 시작했다.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주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당신 참 멋진데!”라는 찬사가 나왔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 청소까지 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다르다”라는 말이 나온다. 내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 그릇이 가득 차게 된다. 남편은 나의 사랑의 언어인 침대 정리, 목욕탕 정리, 설거지, 청소 등으로 나의 사랑의 그릇을 채워주었고, 나는 남편의 사랑의 언어인 ‘인정’과 ‘칭찬’으로 남편의 사랑 그릇을 가득 채웠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친밀감을 맛볼 수 있었다.

봉사나 인정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인 접촉’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다. 관심, 앓, 존중, 책임감이 다. 네 가지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서로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만난 지 40년이 되었다. 아직도 서로를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책임감과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사랑받는 아내, 남편이 되기 원한다면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고난주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생각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틀림없는 성경적 생각이다(고후 5:21, 사 53:5). 그렇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른바 ‘처벌대속론’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처벌함으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충족시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세 신학자 안셀름의 책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발전되어 나온 개념이다. “하나님은 명예를 회복

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존재에 의해 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생겨난 것이다. 이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추구하는 분이다. 정의를 위해 반드시 보복해야 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분이 되어 버리고 만다.

어떤 집사님이 안 믿는 아들에게 “왜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나님을 보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신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복적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추구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편적 정의(당시 눈을 다치게 하면 얼굴

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생기면 생명을 멸하는 보복행위가 유행하였다)를 말씀하셨지만, 실상 죄지는 자를 처벌함으로 정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의로 여기셨다(창 15:6).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이 땅에서 결코 누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분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다.

십자가는 보복적 정의에 의해 희생된 제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 회복적 정의의 산실로 여겨져야 한다. 실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셨다. 말 없는 순종을 하셨고, 죽음의 종노릇 하는 우리에게

게 다가가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은 분명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만일 용서를 값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있다면 용서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거저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죄값을 다 치렀다는 완성의 의미도 있었지만, 보복 없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성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호 6:6)을 인용하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마 12:7)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기 전에 이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셨다.

오직 사랑만이 죄를 멸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다. 희생과 제물을 강조하는 종교는 보복적 정의의 틀에 갇혀 버리고 만다. 그러나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갚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회복적 정의의 진수로 남아있다.

십자가, 회복적 정의의 진수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예수 부활, 우리의 소망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8-9절).

베드로는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한 제자요, 수제자라고 일컫는 핵심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귀로 듣고, 눈으로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이 받은 시험과 핍박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강력한 확신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 ‘도마의 고백’처럼 보지 않고 믿는 부활의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면 전도집회를 할 필요가 없고,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인다고 달려드는 이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꼭 만져 보고 체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이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야만 진정한 영의 거듭남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하심으로 고통받고 핍박받던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는 가톨릭이 지배적이었던 여러 나라에서 개신교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낭트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일부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였던 루이 14세가 1685년 낭트칙령을 폐기합니다. 그때부터 1787년 관용이 다시 허용되기까지 엄청난 핍박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에게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세벤느산맥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 있습니다. 핍박받던 위그노들의 순교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숨어다니며 비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잡히면 목회자는 처형당했고, 남자들은 노예가 되어서 배 밑에서 평생 노를 젓는 갤리선으로 보내졌고, 여자들은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시대 모진 고난 속에서도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제목이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

들의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고 위협해서 구해주십시오. 갤리선에서, 감옥에서 고난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지켜 주소서.”

그 박물관에는 당시 배의 모형은 만들어 놓고, 당시 노예로서 노를 젓던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고백이 이 문장입니다.

“나를 매고 있는 이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그들은 평생 사슬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소망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때문입니다.

부활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늘에 예비 된 유업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얻게 될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4월 세레자

■서빙고

유아

윤예담 201103
윤재필 염소명
김세은 200110
김재찬 유소정
류하윤 211224
류권용 이윤정
최라엘 200108
최호영 이서정
최다엘 210428

최호영 이서정
이채은 200330
이호신 박미향
노하임 211008
노현우 정시은
김수호 200918
김우진 송하은

■양재

양영욱 720123
이승희 841108

전경희 540105
채선희 510108
유아
나예안 200502
나믿음 안성경
박도우 200408
박익수 윤지선
박지율 200424
박상영 이유리
서윤후 181021
서상완 김빛나

서가윤 210209
서상완 김빛나
송하랑 201029
송영민 노유진
옥예은 210914
옥정철 정한나
이정윤 200622
이윤재 임민아
이하엘 200625
이용기 김은영
조현우 210907

조장래 박희락
최사랑 200411
최현형 이하나
최하늘 220127
최현형 이하나
최시은 200326
최인홍 장효진
한이수 211024
한중석 이가현
허성아 210305
허태호 권주영

허성윤 210305
허태호 권주영

■대학청년부

J4U
이경은 931112
신현지 910424
W
김수지 950711
근순재 901223
SNS

길유미 950823
양수정 931111
입교
김수정 930925
유아
유 단 210201
유민준, 신서현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가정사역

선옥기 문혜자
유영순 조용숙
임현섭 우한배
정찬웅 우상두

■ 강서

김옥희 변영애
김용재 박 순
서연미 심정숙

■ 강촌

권영희 홍성희

■ 고양은평

구선희 김화선
김종현 홍기영
박경희 이경민
박미현 이연옥

■ 관악금천

김용서 유시용
손윤정 박인숙
유광수 김옥현
이지용 조성호

■ 광명

조영선 서은희

■ 김포

박은지 김상모
윤준식 공승천

■ 노원

오정철 이용호
원영조 김영순
장원희 오선숙
차은태 강정구

■ 동대문중앙
박신영 김은기
이숙현 이현원
이정민 이연미
전미애 박규리

정혜경 갈자영

■ 동작

정찬대 구자엽
최유정 송륜진

■ 마포

김상임 최현경
윤현정 한천애
이기봉 임수현
조성환 남주현

■ 북누리

이진희 전정원

■ 서대문

고성주 최진옥
김미혜 허영희

■ 서빙고

이상민 강은택

■ 성동광진

김금주 임영주
송선아 홍난이
이진우 박수진
조세미 조선미

■ 성북

박희자 최선영
신재혁 박민규

■ 신용산

송애련 유혜리
정호녀 김수아

■ 양천

김영우 장세영
박진영 박우선
이선화 이춘주
표광민 김동원

■ 여의도

김영우 장세영
박진영 박우선
이선화 이춘주
표광민 김동원

■ 영등포구로
김영분 황미경
유정재 김진규
이소영 박명애

■ 용산

김길정 정태웅
김선영 김근영
김지영 유미란
노지혜 홍미영
장원준 장승훈

■ 이수

김영희 이정수
김유란 김금희
남희정 김금희
방은성 김화숙
변호순 진선희
이정숙 이미연

■ 이촌

박지성 최지영
박진우 이기영

백은중 하상진
이지연 강윤정
전아영 최희진
조준호 허창우
최지은 서오숙

■ 중종로

강연주 구지영
박소영 황현주

■ 특별한초대

최은주 진효진

■ 한강

김보현 김정아
신한승 이철원

■ 공동체없음

김민정 김미경
김희원 선미화
박찬숙 진현정
신승은 최지윤
이선혜 성중선

이채민 박정원
황귀희 권오향

■ OCC

김경숙 송기현
김지영 최주희

■ S브릿지

김은신 박현정
류가영 최지연
문윤희 이태원
송은영 이은자

● 대학청년

■ 길
이승민 박석봉

■ 요셉

김준기 이규성
박수연 이경남
이은성 김명숙
정아영 양연정

■ 하늘
송수민 이해지

■ Pole2

권승빈 김기훈

■ SNS

김상호 김승민
김태웅 최성일
김혜린 이윤희
남한나 이경미
양시은 권영애
이시유 임경영
이혜린 이진희
이혜련 김윤정
홍예은 선미화

■ W

성수정 이민진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서빙고 5월 1일(주일) 3부 예배
수료대상자는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수료예배대상자: 2월 1일-4월 10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 서빙고

■ 고범석 목사반

곽선혜
권태경
김미선
김민아
김선민
김소연
김정은
김태형

■ 이경자

이규배
이명자
이문정
장학성
전태영
전현경
정태준
조성근
조은지
조현아

■ 최현성

한규진
함지연

■ 육동건 장로반

김현희
김희선
김효주
김성준
방희석
배현경
변상호
서연주
송정희
안태숙
오경자
오세필

■ 임동욱

최지원

■ 최호림 장로반

고은희
김광직
김주리
김효정
문정혜
이영주
이유진

■ 박성환

송혜경
유남욱
유윤상
이시라
이정아
장민석
전승환
정양미
정은주
정희정

결혼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김지현, 장미경(온누리교회 장로, 집사)의 아들
 김경년(온누리교회)
 김주훈, 김수진(문산중앙교회 집사)의 딸
 김민주(문산중앙교회)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송관용(대망교회 강도사), 이명희(신반포중앙교회
 권사)의 아들 송재홍(신반포중앙교회)
 김강환, 김순희(천안중앙교회 집사, 권사)의 딸
 김소해(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는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중년(50세이상)의 재능 나
 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 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953-7134)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원 모집
 내용: 발달장애인 점심 배식 지원,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
 계 등 방역용품 후원
 문의: 신경자 행정담당(02-6951-0329)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인생 네트' 영상제작 스토리 공모
 내용: 55세 이상 서초구민 중 기록하고 싶은 삶의 특별한
 순간이 적힌 사연을 사진 4장과 함께 신청
 문의: 김유경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구가족센터 '오롯이가족' 회원 모집
 대상: 서초구 및 인근지역 한부모(이혼, 비혼, 사별 등) 및
 미성년 부모 가족
 내용: 회원가입 후, 부모자녀관계향상 문화 프로그램 및 부
 모교육 진행(개설시 별도 신청)
 기간: 모집 연중 상시
 문의: 교육문화팀(070-7477-2612)

재 정

실업조현금: 하나는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왕과 심리상담가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성적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 자문동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광고

■ 소천

4/13(수) 양천 이희성 성도 부친상 고 이선근
4/14(목) 여의도 강남미 권사, 동작 감재오 성도 부친상
 고 김근묵
4/16(토) 양천 박상태 집사 모친상 고 이외환
4/16(토) 강남D 원정림 성도 시모상 고 김종금
4/18(월) 하모니 최현보 성도 모친상 고 이선우
4/18(월) 양재B 고 박태섭 성도
4/18(월) 성북 민성혜 성도 남편상 고 박기홍
4/18(월) 동대문중앙 김선애 성도 모친상 고 이오례
4/19(화) 일산 문현근 성도 부친상 고 문에양

■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분야: 서점직원 2명,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각 1명
 형태: 정규직 및 계약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및 경기지역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2

조혜련 집사 가족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성경공부,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YES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유튜브 CGNTV 채널 검색

OK